



협회 일 보



제 841호

2024.9.27.(금)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본격 출범

- ◇ 지난 9.24(화) 창립총회 성료, 고품질 순환골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기대
- ◇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



지난 9월 24일(화)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95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하준 협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철규 의원, 임이자 의원, 환경부 유승광 국장 등 각계 각층의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는 설립취지서 및 정관 확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 임원 선출 등이 이뤄졌습니다.

설립취지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동 협동조합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환골재 시장의 활성화와 생산업체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순환골재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대규모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이사장을 비롯해 감사, 이사 등 1년간 협동조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임원진도 선출되었는데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태성개발(주) 김효성 대표와 (주)진영이엔티 김세중 대표가 투표를 통해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이사로는 창립준비위원회로 노력해 온 협회 및 공제조합 이사진이 자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금주 이사장은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순환골재 관련 공공 구매입찰 등에서 공동참여를 통하여 시장 내 순환골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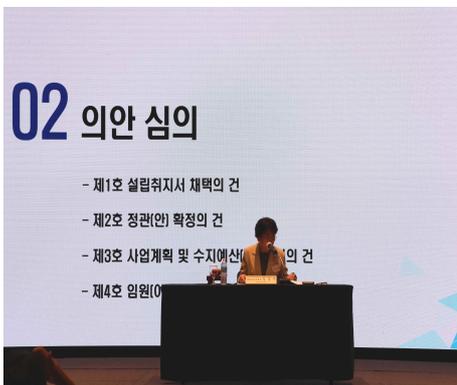
창립총회 전경



박하준 협회장 축사



환경부 이승현 과장 축사



의안 심의



김금주 이사장 당선사례



김효성(좌), 김세중(우) 감사 당선사례